만물을 내 발아래 굴복시키기

(엡1:15~23)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만물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이 만물을 발아래 굴복시키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만물을 당신의 발아래 굴복시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교인의 한 사람인 내가 만물을 내 발아래 굴복시켜야 그 일이 가능해진다 이겁니다.
내가 내 발아래 만물을 굴복시키기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발아래 굴복시키시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물을 발아래 굴복시키실 때는 교회의 머리로써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자!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낳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만물을 그 발아래 굴복시키신다.
왜 이게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낳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만물을 발아래 굴복시키시는 일이 그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굴복시키시는데, 거기에 무슨 방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만물을 발아래 굴복시키시는데, 그 만물이라는 게 프리즘,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9가지의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덟 가지의 빛깔로 스펙트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달리 눈길을 주실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아들 예수님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피조의 세계를 만드실 때, 예수님께로 보내던 사랑의 시선을 멈추시고 피조의 세계가 만들어질 곳으로 시선을 돌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보내시던 사랑의 시선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프리즘처럼 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뒤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세계가 바로 피조의 세계이고 창조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이 창조의 세계에 만물 하나하나가 생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던 아버지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그 만물을 예수님께 굴복을 시킨다, 만다, 하는 얘기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만물의 존재의 의미가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만물이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리고 존재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존재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27살 된 아들을 잃은 어느 집사님과 함께, 그 아들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걸터앉아서, 집사님이 하시는 한탄과 정말 그 설움과, 막막함에 몸부림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아들이 쓰던 침대, 책상, 옷장, 옷장 안에 있는 옷과 책상 위에 놓여있던 여러 가지 수료증서, 자격증서 받은 것들, 아들이 쓰던 잡동사니 물건 하나하나가 다 껍데기만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그 물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서, 엄마가 아들 방 청소할 때, 다 아들이 쓰는 물건들이니까 잘 보관하면서, 잘 치우면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없어지니까 아들이 쓰던 물건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충만해 질 때 교회가 충만해 지니까 교회도 역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만물을 예수님의 발아래 굴복시키는 일을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은, 예수님의 발아래 만물을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부터 승천까지의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만물을 발아래 두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 이상하잖아요? 이 일 없어도 발아래 두시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미 창조의 과정을 봐도 발아래 굴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발아래 굴복시키시려 그러면, 십자가 사건 없이 그냥 힘으로 굴복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강압적으로 오셔가지고 한 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다 죽어라.
그러니까 열 사람이 반항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죽이면 아홉 사람은 굴복할 거 아닙니까? 너무 간단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힘이 하나도 안들 일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거 왜 그러냐?
오늘 예수님께서 만물을 발아래 굴복시키는 상황에 대한 묘사를 잘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있어요, 그건 뭐 우주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과 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는 다 녹아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냥.
그 만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만물 위에 떠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발아래 두시는 상황이 어떠냐 하면,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만물을 발아래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발도 교회의 지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굴복시키신다는 것은, 발아래 두신다는 것은, 교회가 만물을 발아래 둬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만물을 발아래 두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고, 또 교회가 만물을 발아래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물을 발아래 둬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인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만물 위에 있는데, 나 혼자만 만물 속에 들어가 있다, 나 혼자만 빠져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교인이 아닌 거지요.
나 한사람이 만물을 발아래 둬야지 예수님께서 만물을 발아래 두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우리 모든 교인들, 선택한 그 백성들을, 예정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굳이 이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발아래 두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만물을 발아래 두시려고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을 끌고 만물을 발아래 두시려고 하시니까 이게 어려운 거고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 대단하잖아요?
근데 더 대단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기적 같은 일은 뭐냐 하면,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을 가르쳐서 서울대학 들어가게 하는 게 더 위대한 능력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만물을 발아래 굴복시킬 때, 예수님께서 만물을 굴복시키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발아래 굴복시킨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굴복한다는 것은, 발아래 둔다는 것은 정복한다는 거예요.
이겨서 정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정복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중세 때 십자군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한다고 예루살렘 성지를 정복하고 있었던 이슬람 세계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그래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뭐 열 번인가 열 한 번인가 싸우잖아요? 이런 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마디로, 내가 만물을 발아래 두는 일은,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부를 맡고 있는 교육전도사 때에, 청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대천 앞바다에 가서 수련회를 가는데, 서해안 쪽으로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태풍이 오기 전날까지 놀다가 왔는데, 비치볼 하나를 놔두고 왔거든요.
태풍이 부니까 찾으러 안 갔어요, 그냥 버릴 생각하고.
근데 태풍이 지나간 아침에 나가 보니까, 비치볼이 그 서해안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태풍 속에서도 가라앉지 않았던 겁니다.
서해안 바다뿐만이 아니라, 뭐 호주까지 이어지고 저기 남태평양까지 다 이어지는 그 태평양 바다 전체가 난리를 쳐서 파도를 일으켜도, 결코 제 머리만한, 수박만한 비치볼 하나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치볼 하나가 태평양 바다에 떠 있으면, 태평양 바다 그러니까 미국의 LA 해안에서부터 우리나라 서해안까지 이르는 그 태평양 전체를 발아래 두는 거지요, 수박만한 이 비치볼 하나가.
그리고 LA부터 우리나라 서해안까지 이르는 태평양은 결코 그 수박만한 비치볼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면 여러분, 가게 같은 거 open 할 때 보면 풍선을 만들어 가지고 풍선을 이어서 아치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비치볼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에요.
그리고 그 비치볼들이 아치모양으로 모여 있는 그 위에 머리로서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치볼같이 될 때에, 태평양 바다 같은 만물을 발아래 두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해 보면, 내가 만물을 발아래 둔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

어떻게 비치볼이 태평양을 발아래 두는 것처럼 그렇게 둘 수가 있는가?
예를 한 번 이렇게 들어봅니다.
봄이 되면 대학마다 축제가 열립니다.
그 축제 때는 축제의 여왕을 뽑아요, 뭐 메이퀸이라고 합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 대학을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메이퀸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메이퀸이 뭐 이화대학에서만 있는지, 아니면 남녀공학인 뭐 연세대나 고려대나 서강대 같은데도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남녀공학 학교에서 메이퀸으로 뽑혔다고 합시다.
근데 그 메이퀸이 우리 과 학생이에요, 여자가 많지 않은 과에요, 근데 메이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메이퀸이 된 학생에게 구애하는 수많은 남자 경쟁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드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하도 도도하게 노니까, 다른 학생들이 몇 번 집적거리다가 다 떨어지는데,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결심을 갖고 달려들어 가지고, 퇴짜 맞고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서, 결국은 여자 친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 인간 승리라 그래요.
이런 식의 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발아래 굴복시킨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결심을 한 이 남학생이 메이퀸에게 정복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메이퀸의 매력이 강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쌔고 쌘 것이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 목을 걸고 열 번씩이나 찍으려고 달려들었겠습니까?
열 번 찍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만큼 강하게 정복당한 거예요, 강하게 사로잡힌 겁니다.
한두 번 찍다가 마는 남자 아이들, 그만큼 그 메이퀸의 매력이 약하게 작용한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돈을 정복한 겁니까? 내용적으로는 돈에게 정복당한 겁니까?
그 안 벌리는 돈을, 얼마나 돈이 좋았으면 그렇게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마음가짐으로 달려들어 가지고, 기어코 돈을 벌어냅니까? 바보 멍청이처럼.
돈에게 정복당한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훌륭한 게 아니라 돈에게 먹힌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막을 알아보니 메이퀸에게 비밀이 있었어요.
뭐였냐 하면, 진짜 메이퀸 자신이 마음을 준 남학생은 다른 남학생이었어요.

아! 묘하지요? 그러니까 인생이 신비한 거예요.
근데 그 남학생은, 이상하게 메이퀸이 앞에 있는데도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남학생을 보다보다 못해 참다못해 가지고, 하루는 아~무도 안 보는데(창피하니까) 딱 붙잡고 따진 거예요.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이 순간이, 메이퀸이 그 관심이 없어 보이는 남학생의 발아래 굴복하는 순간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굴복시킵니까?
세상 만물 속에 좋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다 있어요.
오늘 보니까, 통치 권세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돈의 권세, 권력의 권세, 미인의 권세, 미인의 권세 굉장하잖아요?
고개 들고 다닙니다, 남자들이 쩔쩔매잖아요?
교통위반해도 교통순경이 통과시켜 버려요, 이게 바로 미인의 권세 아닙니까?
이 모~든 권세가 만물 안에 다 있어요, 좋아할 만한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좋아할 만한 것들을 투명인간 취급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발아래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걸 갖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은 정복을 당한 거예요, 정복을 당한 거.
그거 없이도 마음이 만족하고 편안하고 마음이 기쁜 상태, 이것이 바로 발아래 굴복시키는 겁니다.
교인 한 사람이 이렇게 만물을, 그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만물, 그것들을 투명인간 취급해버려 가지고, 만물 속에 좋은 것들 하나도 없어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좋고 만족할 때, 그 만물을 발아래 굴복시키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드디어 만물을 발아래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비치볼처럼 되면 돼요.
돈이 좋아서 열 번 찍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만물 속에 빠져 버린 사람이에요.
메이퀸을 열 번 찍어 가지고 내 여자 친구로 만든 사람은, 메이퀸에게 빠진 사람입니다.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다른 게 차 있어야 돼요.
메이퀸보다 더 좋은 것, 돈보다 더 좋은 것, 권력보다 더 좋은 무엇인가, 자식보다 더 좋고, 아내와 남편보다 더 좋은 무엇인가가 있어야, 아내와 남편에게 빠지지 않고, 자식에게 빠지지 않고, 돈에 안 빠지고, 메이퀸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을 마음에 품어야.

비치볼이 공기를 담고 있을 때 태평양이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늘이 담겨질 때, 이 세상 만물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이 있을 때 세상 만물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발아래 둘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이 뭐에요? 어디서 하늘을 마음에 담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세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
그 하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하늘이신 예수님께서?
땅에, 만물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돈에 빠져 있고, 권력에 빠져 있고, 메이퀸에 빠져 있고, 승진에 빠져 있고, 자식에 빠져 있고, 형통에 빠져 있고, 성공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끌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일으키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뭐에요?
만물 속에 빠져 있던 마음이 빠져 나오는 겁니다.
메이퀸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메이퀸의 매력에 붙잡혀 가지고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돈 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빠져 나오는 겁니다.

빠져 나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가 계신 곳까지 끌고 올라가십니다.
당신의 본래의 창세전부터 있던 아들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끌고 올라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아들의 위치로 올라간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능력 아닙니까?
왜 위대한 능력이냐!
우리는 만물 속에 있는 좋은 것들, 어느 한 가지라도 아주 우리는 그냥 환장을 하잖아요, 환장을 해.

거기에 빠져 버려요, 그것에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주님께서 만물을 발아래 두시는 것은, 홀로 발아래 두실 것은 쉬운 일인데, 우리같이 만물 중에 극히 사소한 좋은 것에도 쉽게 쉽게 빠져 갖고 헐떡거리는 자들을 끌고 만물을 발아래 두시려고 하시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내려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 거지요, 우리 같은 것들이 만물을 발아래 둘 수 있게 하신 사건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발아래 두시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지요.
근데 우리 같은 것들을 끌고, 나 같은 것 한 사람이 만물을 발아래 둘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바울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다 라는 게 뭐에요?
어느 목사님, 맨날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앉도록,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맨날 그 얘기만 하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교회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부흥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만물을 발아래 두는 사람들로 모여 있느냐로 찾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진정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으니까.
만물을 발아래 두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면, 주님은 그곳의 머리가 아니십니다.
그건 또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만물에 빠져서 헐떡거리는 거예요.
좀 더 큰 건물, 좀 더 좋은 건물, 좀 더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은 헌금을 내기를 바라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게 만물을 발아래 둔 겁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맨날 총회장 되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만물을 발아래 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머리도 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발아래 두어야 합니다.
만물을 발아래 두고, 만물 속에 좋은 모든 것들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이미 만물 없이 하늘로 기쁜 상태에서, 만물을 발아래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버지의 위대한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이루어 졌으니, 우리가 마음을 십자가에 둠을 통하여 하늘로 마음이 채워지게 하심으로, 만물을 내 발아래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